

# 민주 전대 무효诉 촉각 곤두

지역위원장 20여명 가처분 신청 준비…박지원·박주선 최고는 부정적 입장

## 법원 수용땐 야권통합 일정 큰 차질

통합에 반대하는 민주당 원의 지역 위원장들이 13~14일 법원에 전당대회 협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다라고 벼르고 있어 귀가 주목된다.

통합 반대파인 원의 지역위원장 20여명은 전날에 이어 13일에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가처분 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대의 지역 위원장(수원·팔달)은 이날 오전 '오늘(13일) 내로 서류가 완성되면 가처분 신청을 바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출석 대의원'은 과반을 넘겼지만 '투표 대의원'은 과반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통합결의안이 통과됐다고 선

언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통합 찬성파는 과반이 출석 했으므로 통과된 것이 맞다는 주장을 폐고 있고 통합 반대파는 과반이 투표 하지 않아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당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당 지도부의 통합 작업에 수차례 제동을 걸었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들의 가처분 신청 방침에 부정적 입장은 보이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이 자신이 통합에 찬성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원외지역위원장들의 법정소송에 회심의 미소를 짓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폐이스

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는 누구보다 가장 강력하게 통합을 주장해 온 저의 진정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의혹 정족수 문제와 관련, "저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당대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고 당원들에게도 법정소송을 하지 말고 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고 반발했다.

박 최고위원도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의원들의 약 88%가 찬성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면서 "대의원의 뜻이 확인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 결의를 인정하고 통합과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모임인 '수요회'도 이날 조찬 모임을 갖고 통합에 대한 전대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원외 지역위원장들

도 설득해 소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들은 고집을 끊히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실제로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기각결정이 나면 통합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문제는 다소 복잡해진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시민통합당(혁신과통합)과 한국노총 등 야권 세력들과 추진하고 있는 통합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11일 전당대회는 무효가 되고 을말이나 내년 1월초에 열릴 예정인 통합야당의 지도부 선거 전당대회 일정도 틀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찬성파는 전당대회를 다시 열거나 탈당을 통해 통합을 완성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오른쪽)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13일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양천문화회관에서 열린 양천갑 지역위원장인 차영 전 대변인 출판기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손학규-박지원 화해?

## 이형석·양형일·노관규·최경주·윤민호

### "내년 총선 출마하겠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예비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봇물을 이뤘다.

이형석(50)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은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의 편이 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광주 북구 갑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한 참여정부와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한 시민공동체를 만들

겠다"며 "시민 정치시대의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형일 전 국회의원도 이날 기자간 담회를 통해 "나후된 광주 동구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자치구로 조성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광주 동구 출마를 선언했다. 양 전 의원은 "역사의 정도를 바로 잡고 광주와 동구를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주 전 통합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사회의 실에서 퇴임식을 했다. 노 시장은 퇴임사에서 "지난 6년간 잘 견뎌주고 따라준 직원들이 고맙고 미안하다.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이제 더 큰 일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순천의 새역사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윤민호 전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진보정치의 꿈과 희망을 이제 국회에서 현실로 만들겠다"며 광주 북구를 출마를 선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에서 정권교체의 큰 발걸음을 내딛고 정의와 풍요로움이 조화를 이루는 광주를 만들겠다"며 광주 북구를 출마를 선언했다.

윤민호 전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진보정치의 꿈과 희망을 이제 국회에서 현실로 만들겠다"며 광주 북구를 출마를 선언했다.

# 야권통합 수임기관 첫 회의

## 민주·혁통·한국노총 18일까지 통합 의결키로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은 13일 수임기관 첫 합동회의를 갖고 18일까지 통합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수임기관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은 통합 정당의 당명·강령과 당헌 등을 결정해 18일 오전 전체 합동회의를 통해 통합합당에 대한 의결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실무 협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등록 업무와 총무 등을 맡는

총괄반과 지도부 선출 등 당헌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는 당헌반, 강령과 정책 등을 결정하는 강령반 등 3개 분과를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각 분과는 이날부터 실무 작업에 들어가 14일까지 마치는 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약정이 '민주당'으로 정해진 당명도 각 당이 14일까지 시민 공모를 진행한 뒤 합동의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통합 반대파인 박양수 전 의원과 이현주 지역위원장이 참석해

통합 결의일을 정한 것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양당은 지난 7일 최대 쟁점인 경선룰과 지도부 구성 등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룬 상태다.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대의원 30%, 당원·시민 70%'로 구성되며, 예비경선(첫회)과 1인 2표제가 도입된다.

대의원 선거인단은 양당 대의원을 동수로 꾸리고, 민주당의 당비당원 12만명은 별도의 선거인단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선거인단으로 인정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임인 진보행동의 지원 사격을 받고 있어 가장 앞서 있다는 게 중론이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만 하더라도 '대세론'을 형성할 정도였으나 통합협상 과정에서 반통합파로 오해를 받으면서 선두에서 뒤처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통합당 인사인 문 대표의 경우 높은 대국민 인지도를 바탕으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친노 지지층은 물론 애원대통합 성사시 통합정당의 당원으로 기입하겠다는 회원 18만 명의 서명을 받아 이들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野통합전대 당권경쟁 시동

### 한명숙·박지원·문성근 등 20여명 후보 거론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의 통합작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통합 정당의 지도부에 도전할 당권주자들의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13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애원통합에 필요한 실무 준비작업 등으로 통합전대는 다음달 8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예비경선을 통해 1차로 9명 정도로 후보군을 압축한 뒤 본경선에

서 6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뽑을 방침이다. 현재 후보군이 최대 20여명에 달하지만 한명숙 전 총리, 박지원 전 원내대표,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우선 한 전 총리는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내 친노(親盧) 진영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다 당내에서도 범계파 모임인 진보개혁모임, 486도



을 수립해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분야별 안전확보 방안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보육 교직원 및 통학차량 운전자 교육 ▲안전주간 설정을 통한 교육 및 홍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지대 설치 등을 권장하도록 했다.

## 영구임대 삶의 질 지원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문상필·정병문·조오섭·허문수·강은미·홍인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가 13일 상임위원회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례안은 광주시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장기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기초로 하는 조례로서는 전국 최초가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 MBA/Law School 奒學生 募集 ]

碧峯(벽봉)獎學會는 家庭 事情으로 인하여 進學이 어려운 學生 또는 社會人 중에서 世界에 꿈을 펼칠 人材를 設立者의 뜻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기 碧峯獎學生을 募集합니다.

## ◎ 碧峯(벽봉)獎學會의 設立趣旨

本人은 碧峯이란 號를 가진 大韓民國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韓國에서 生을 받아 現在는 日本에 居住하고 있는 在日僑胞입니다. 異國 땅에 살면서 恒常 생각했던 점은 祖國이 國際社會에서 尊敬받고 榮光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過去 우리 民族은 견디기 어려운 酷毒한 屈辱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祖國을 繁榮시키고 富強한 國家로 發展시켜 國際社會에서 精神性에 있어서 尊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民族의 크나큰 希望을 確實하게 또한 빠른 時日内에 達成하려면 國際的活動할 有能한 人材의 育成이 가장 時急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소신에 따라 지금까지 Business 세계에 獻身하여 왔고, 이제는 國際의in 感覺을 지니고 國際社會에서 當當하게 活動할 肢은이를 育成하는 事業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비록 적은 힘이나마 이 事業에 力盡하는 것이 본인이 民族을 爲해서 할 수 있는 最上の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趣旨에서 碧峯獎學會를 설립, 2009년 學期부터 民族의 尊嚴을 드높이는 奒學事業을 具體的으로 推進하고 있습니다.

本人의 뜻이 비록 큰 바다의 작은 물 한 방울에 지나지 못할지라도 民族과 祖國의 發展에 보탬이 되면 더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碧峯獎學會의 趣旨이며 精神입니다.

## ■募集人員 : 3명 (MBA 2명, Law School 1명)

### ◦獎學金

- MBA는 1년에 美金 \$40,000 (2年間 \$80,000)
- Law School은 1년에 미화 \$40,000 (3년간 \$120,000)

### ◦應募資格

- 美國 上位 10位圈內 大學의 MBA 또는 Law School에 合格한 者 (홈페이지 參照)
- 大學 全學年 成績이 平均 B學點 以上인 者

### ■提出書類

- MBA 또는 Law School 合格證
- 指導教授 또는 職場 上司의 推薦書
- 大學 成績證明書
- 保護者の 所得 또는 納稅 證明書
- 自己紹介書 (進學動機 및 將來의 希望, A4用紙 3page 以內)
- \* 모든 英文 書類는 韓國語로 譚譯 分添付 바랍니다

### ■接受處

- 서울특별시 鍾路區 景雲洞 89-4 SK 허브101-713호 統一報社
- 서울支社 内 碧峯(벽봉)獎學會

### ■接受期間 및 銓衡方法

- 2012年 4月 30일 ~ 5月 4일 (登記郵便 接受도 5月 4일도착분에 한함)

### ◦登記 전형

- 書類審查(1次 合格者에 限하여 2次 登記日時와 場所를 個別通知)

### ◦登記 전형

- 審查委員 面接 (5月 10일 實施 豫定)

## ◦제3次 전형

- 審查委員會에서 最終 選定者 確定
- 最終合格者 發表
- 2012年 5月 13日 豫定

## ■其他

- 1. 碧峯學生 選拔은 德望있는 分들로 構成된 審議委員會에서 客觀的 으로 選拔할 豫定이며, 提出된 書類는 返回하지 않습니다. 碧峯學生 募集과 關系한 자세한 事項은 碧峯獎學會의 홈페이지 ([http://](http://blog.daum.net/lkh3849)